# “만당 스님 세운 기틀 위에 문화 쌓겠습니다”

지역 불교人 영광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

**수행 · 문화 열린 도량 지향**
**독채형 템플스테이 등 추진**
**문화 통해 미래불교 제시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제불교 최초 전래지이자 천년고찰 영광 불갑사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열반한 만당 스님의 중창불사를 이어받은 주지 덕상 스님〈사진〉은 이제 불갑사를 단순한 신앙의 공간을 넘어 수행과 문화, 포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덕상 스님은 은사 만당 스님이 평생을 바쳐 세운 도량을 “튼튼한 뼈대”라고 표현했다.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 위에 문화와 사람, 지역이 함께 숨 쉬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한다.

“은사 스님께서는 불갑사의 훌륭한 뼈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위에 문화라는 살을 붙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량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덕상 스님이 그리는 불갑사의 미래는 종교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는다. 지역민과 관광객, 불자와 비불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을 꿈꾼다. 8월 말 완공 예정인 교육관에서는 인문학 강의와 사찰음식 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쉬고 배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덕상 스님은 “사찰이 지역사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은 아직도 많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이 앞으로 불교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포교 역시 기존의 틀을 넘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불갑사 마라난타 불교대학은 지금까지 21기에 걸쳐 5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며 지역 불자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현재 22기 수강생들의 수계식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전반을 신설해 보다 깊이 있는 불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덕상 스님이 가장 큰 기대를 거는 사업은 전통등체험관이다. 불갑사 곳곳에 전통 한지등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만들고, 전통등 제작과 전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덕상 스님은 “전남에는 아직 전통등 분야 무형문화 자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영광군과 함께 전통등 제작기술을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양한 미래 불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할 기념관과 개방형 수장고를 비롯해 노후 전각 보수, 산내 암자 복원사업 등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템플스테이관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독채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덕상 스님은 “현대인들은 조용히 혼자 머물며 쉬는 공간을 원한다”며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진정한 쉼과 수행을 제공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덕상 스님이 바라보는 영광불교의 미래는 결국 지역과의 상생이다. 불갑사를 중심으로 불갑면을 전라남도 불교성지순례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연결하는 순례길을 조성해 지역경제까지 함께 살리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불갑사와 함께하니 지역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지역도 살고 사찰도 살아납니다.”

# 미래인재 양성 ‘선연 7기’ 세종서 모였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세종 영평사서 템플스테이**



한국불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선연(禪緣) 7기 불교핵심인재개발 템플스테이’가 7월 31일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에서 입재했다.〈사진〉

이번 템플스테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전국에서 모인 56명의 불자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입재식에서 주지 환성 스님은 환영법문을 통해 “선연에서 맺은 인연은 2박 3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질 소중한 불연(佛緣)이 될 것”이라며 “좋은 친구를 만나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이번 선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국장 도진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선연 7기 참가 청소년들의 입재를 축하하고, 이번 템플스테이가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연이수 학생(청담고 2)이 대표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연 7기의 모든 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다.

선연 7기를 총괄한 권진영 동국대 부속선화여고 교장은 “선연은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불교핵심인재개발 프로그램”이라며 “2박 3일 동안 수행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2박 3일 동안 법문과 군법사 상담, K-명상과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성찰을 비롯해 AI 특강과 AI 콘텐츠·장엄등 제작 실습, 불교 청년 창업가와의 만남, 청년 불교문화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불교적 가치와 미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200여 청년불자, 화엄사서 도반되다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
**수행 · 교류…청년포교 도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구례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와 천은사 일원에서 ‘제17회 영 부디스트 캠프(KBUF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했다. ‘가르침은 빛으로, 우리는 평생 도반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국의 대학(원)생 청년불자 200여 명이 참가해 수행과 신행,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며 불연을 다졌다.

캠프 첫날 화엄사 화엄원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참가자들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대회사와 치사, 환영사, 축사를 들으며 2박 3일간의 원만한 회향을 발원했다.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이번 캠프에서 맺은 인연이 평생 서로를 지탱하는 도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엄사는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대불련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대불련 총동문회도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2박 3일 동안 화엄의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의 등불로 삼고 평생 함께할 도반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속초 보광사, 일주문 정초석 봉안

**8월 3일, “진리 받드는 밑돌”**



속초 보광사(회주 석문 스님)가 일주문 건립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정초석을 봉안했다.

보광사는 8월 2일 일주문 건립 현장에서 정초석 봉안식을 봉행했다. 봉안식에는 시민과 불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천년 도량 기틀을 세우는 불사의 원만 회향을 염원했다.

이번에 봉안된 정초석은 양양 상월천리에서 운송된 35톤 규모의 거암 2점이다. 시공은 50년 경력의 강현구 석공 장인이 맡았다.

회주 석문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오늘 봉안하는 이 돌은 천년 도량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며 진리와 지혜를 받드는 밑돌”이라며 “이 위에 세워질 일주문이 시민과 함께하는 자비의 문이 되고 속초 미래를 여는 희망의 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 선운사, 윤명 대선사 43주기 추모다례재

**7월 31일, 하안거 포살법회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7월 31일 초대 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 대선사 43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오후에는 병오년 하안거 포살법회와 불기 2570년 2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문도 대표 인사말을 통해 “선운사를 교구본사로 승격시키고 도량을 일신해 사격을 갖춘 스님의 유지를 이어 서로 화합하고 도량을 잘 가꾸며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불기 2570년 병오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으며, 이어 열린 불기 2570년 2차 교구종회에서는 임기 만료된 24교구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봉선사 제50회 여름숲속학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50번째 어린이 여름숲속학교를 열고 웃음꽃 가득한 천진불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으며 원만히 회향했다. 이번 여름숲속학교에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50여 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교리와 수행, 전통문화 등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입재식에서 주지 호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진흙 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고결한 꽃을 피워내는 여름날의 연꽃처럼, 1박 2일 동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가져 달라”고 격려했다.

모든 일정은 수계식과 수료식을 끝으로 원만히 회향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 금산사 어린이 템플스테이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4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템플스테이 ‘나도 쉬고 싶다’를 진행했다.

첫날 참가자들은 숙소 배정과 입재식을 시작으로 부처님 품 속에서 놀기, 저녁공양, 저녁예불, 부처님 드림캐쳐 만들기에 참여했다. 둘째 날에는 아침공양 후 다도체험과 연꽃등 만들기, 반려 식물 심기, 천연 버물리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붓다 이니셜 합장주 만들기, 어린이 수계식, 나에게 편지 쓰기, 점심공양, 방정리 및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화평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운문사 제46회 여름불교학교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찾아봐요! 운문의 숲’을 주제로 제46회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첫날에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 교육과 ‘이웃과의 첫 만남’, 경내를 탐방하는 ‘운문 탐험대’, 전통놀이 강강수월래, 108배 염주만들기,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과 대웅전에서 수계식이 봉행했다. 이어진 회향식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주지 은광 스님은 “46년 동안 여름불교학교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 포교에 대한 원력과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번 인연이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광주 동원사 어린이 여름캠프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5회 동원사 어린이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너즐·나즐·우즐(너도 즐겁게! 나도 즐겁게!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놀자!)’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어린이 40명을 비롯해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함께 했다.

8월 1일 열린 입재식에서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은 “공부에 대한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부모님 곁을 떠나 친구들과 스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지장 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다. 절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좋은 인연으로 남아 훗날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공주 이제사 ‘마음등불 캠프’

공주 이제사(주지 백거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8~29일 마련한 ‘2026 청소년 마음등불 꿈사리 마음등불 캠프-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다’가 전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원만히 회향했다.

‘2026 청소년 마음등불 꿈사리 마음등불 캠프’는 조계종이 주최하고 이제사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20명이 참가한 캠프에서는 1박 2일 동안 명상과 공동체 활동, 마음 나누기, 108배 등 수행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지 백거 스님은 “자신의 꿈을 위해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한 가지씩은 스스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